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8호 【루계 제24721호】 주체103(2014)년 11월 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 《ㅌ.ㄷ》결성 88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위원장, 몽골민주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푼씬뻬크당 위원장,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대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의 정치운동 애국적사회주의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대리,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벌가리아사회주의당 민족리사회 부위원장, 스위스 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행정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국제비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 로씨야 21세기판현악단 단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서기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수리아, 중국,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우즈베끼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리비아, 말리, 베닌, 세네갈, 민주꽁고,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메히꼬, 칠레, 카나다, 뻬루, 에꽈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10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존엄높은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통일위업수행과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비서국, 스웨리예의 공산당 국제비서, 니까라과 싼디노민족해방전선 국제관계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부령군, 성간림산사업소, 형제산릉라도피복공장에 모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부령군에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령군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고무산세멘트공장에서 생산을 늘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서두수발전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부령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성간림산사업소와 형제산릉라도피복공장에서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리!》를 정중히 모시였다.

성간림산사업소 로동계급은 해방후 산이 많은 자강도에 림산사업소들을 내오도록 하시고 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날과 날을 보내였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풀어주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형제산릉라도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에도 뜨겁게 굽이쳤다.

여러 단위에 새로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충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벌가리아위원회가 10월 21일 쏘피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벌가리아사회주의당 민족리사회 조직부장 딘꼬 젤레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업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하며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가 10월 28일 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 에두아르드 크나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9월에 비해 수만t의 화력탄 더 생산보장

석탄공업성아래 각지 탄광들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부지구 대규모탄광들을 비롯한 석탄공업성아래 각지 화력탄보장단위들에서 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지난 10월에만도 그 전달에 비해 수만t의 화력탄을 더 생산보장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근 2배에 달하는 석탄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준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단계별증산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돌파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성적인 작전에 따라 석탄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서부지구 주요탄광들의 생산능력확장공사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련관단위들과의 련계밑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기동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을 세우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이 화력탄생산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에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받아들여 석탄채취률과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석탄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령대탄광에서도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하여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탄광들에서 높이 세워진 10월 화력탄생산목표를 돌파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만여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수도의 동력기지에 보내주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보내줄 석탄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부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제남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탄광적인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3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면서 갱별,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진행하여 매일 높은 석탄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덕성탄광, 서창청년탄광, 덕천탄광, 형봉탄광 등 모든 탄광들에서 새 채탄구역확보를 위한 굴진에 계속 힘을 넣도록 하는 한편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탄부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전차, 탄차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월봉탄광에서 10월에 들어와 하루 석탄생산량이 종전에 비해 근 1.7배로 장성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혁신의 불길은 북창지구와 득장지구 탄광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남덕탄광에서 총돌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인포탄광, 회안탄광에서 증산목표수행의 돌파구가 련이어 열려 련합기업소적으로 10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이상의 화력탄을 생산하였다.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 명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더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지난 9월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석탄생산실적을 기록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날마다 화력탄생산에서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흑령탄광 탄부들도 결사의 각오안고 채탄장마다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3배이상의 화력탄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석성탄광을 비롯한 북부지구 탄광들의 탄부들도 불리한 생산조건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전력증산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전망생산능력확장을 위한 굴진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덕천과 북창, 득장지구의 100여개 주요개소들에 강력한 굴진력량들이 투입되였으며 순천지구 탄전들에는 전투력있는 돌격대들이 조직되여 새 갱, 새 구역개발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결사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전에 의해 화력발전소들의 저탄장들에는 나날이 석탄산이 키를 솟구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최고생산년도수준 련속 돌파

신의주마이싱공장에서

신의주마이싱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10월 30일까지 년간 마이싱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그리하여 올해까지 6번째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의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은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년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배인 김창일, 기사장 리상배, 부기사장 공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재보장조건이 어려웠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마이싱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부지배인 김광호동무는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정치사업도 벌리면서 근 1000t에 달하는 석탄을 실어들일수 있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계획수행기간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한개 직장씩 맡고나가 로동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동력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증기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직장장 장영화동무를 비롯한 마이싱직장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새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매달 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유리병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려운 생산조건에서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유리병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활동을 화선식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기술집단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능력이 큰 농마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시운전에 들어가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의 기술자들은 자동제병기도 완성하였다.

공장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리진을 비롯한 수십가지 새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투쟁해나가고있다.

올해까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6번째 련속 돌파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자랑할만 하다.

특파기자 송창윤

10월계획 빛나게 완수

잠업비단지도국에서

잠업비단지도국 일군들과 산하공장들의 로동계급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국적인 10월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린 이들의 로력투쟁에 의하여 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9.3%, 비단실, 일반천생산계획은 각각 100.2%, 100.1%로 수행되였다.

지도국과 산하단위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지닌 임무를 자각하고 생산현장들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월초부터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계획보다 많은 실을 뽑아냈다.

함흥제사공장에서는 공정간, 교대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기대관리, 설비관리를 잘하고 고치선별, 실켜기 등 모든 공정에서 혁신을 일으킨 강서, 성천제사공장에서도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제사공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에 발맞추어 비단천생산자들도 증산의 열풍을 일으켰다.

박천견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원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기대마다 만가동을 보장하여 일반천생산계획을 121.9%로 마무리하였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녕변견직공장의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질좋은 천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수단공화국, 꽁고공화국, 우간다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3일 귀국하였다.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왔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마중하였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 힘을 집중

흑색광업관리국아래 각지 광산, 기업소들에서

흑색광업관리국아래 각지 광산, 기업소들에서 현행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철광석과 부원료생산을 늘이면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은률광산과 재령광산의 박토처리능력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아지고 사별공정들의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밖의 광산들에서도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하성다이야공장에서는 광산용대형화물자동차와 만능삽차다이야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공업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면서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흑색광업관리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기술개건사업을 립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은률광산의 박토처리와 배수, 사별계통의 기술개건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 커다란 증산예비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무기지를 강화하여 필요한 설비와 제관품들을 자체로 만들고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풀어나갔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의 박토처리능력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전동소건설과 배수, 사별계통의 현대화는 품이 많이 드는 방대한 공사였다. 하지만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공법과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종전의 스키프로반을 심부채굴장으로 더 연장하고 보강하는 방법으로 현존생산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박토처리능력을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사별공정에 새 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제품의 실수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과학연구기관들과 합심하여 지난 시기 처리하지 못하던 철광석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새로운 일판을 전개하였다.

태탄광산과 평산광산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할수 있는 선별공정의 현대화와 재자원화실현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하성다이야공장에서는 운광작업에 많이 쓰이는 대형다이야를 자체로 개발할 목표밑에 수입산 대형다이야보다 수명이 길고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는 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 이 나날에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리용할수 있는 설계가 짧은 기간에 완성되고 전문기계공장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관품을 자체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3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였다.

아래단위들에서 성과가 확대될수록 관리국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을 년말전투에로 힘있게 추동하면서 올해 관리국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개건과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면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유색금속생산을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단천제련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오늘도 메아리친다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여도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못 잊을 추억을 불러오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세의 위인의 불같은 헌신의 세계가 실린 기적소리여서 그 세계를 안아보는 천만의 마음들이 절절한 그리움에 젖는것이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인민행렬차,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보느라면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숙소로 정하시고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렬차를 리용하신 회수는 1 647회, 렬차강행군으로 이어가신 로정은 39만 8천여km.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달리는 야전렬차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한생을 경건히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그이의 심장의 박동마냥 끝없이 울려퍼진 애국헌신의 기적소리가 뜨겁게 되새겨지고있다.

몇해전 2월이였다.

그날도 눈보라를 맞받아 달리는 야전렬차칸에서 생신날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이 삼가 인사를 드리였을 때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렬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을 하는것이 습관된것 같습니다. 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지난 두달동안에는 설명절을 비롯하여 명절들도 많았습니다. 명절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며 휴식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인민생활문제가 걱정되여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언제 한번 집에 들어가 발편잠을 잘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며 모든 일군들은 나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기어이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묻노니 이 행성에 두줄기 궤도우를 달리는 기차가 생겨 언제 어느때 우리 장군님과 같이 렬차에서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생신날까지 맞고 보내며 사업하신 령도자가 있었던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새겨안으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혁명일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 조국의 방방곡곡에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였다.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그이의 불타는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강추위가 계속되던 10여년전 1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렬차는 자강도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새벽 3시가 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렬차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이제는 새날이 시작되였는데 좀 쉬시옵기를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지만 강행군길이 아닌가고 하시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수고가 많은데 후날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게 될 때 오늘을 옛말처럼 추억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이른아침 강계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새로 일떠선 중소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도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이 마련해놓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휴식하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그러나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숙소를 렬차에 정하기로 하였다고, 렬차에서 침식을 하여야 계획한 대상들을 이틀동안에 다 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이 뜨거운 격정속에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렬차숙소로 이끄시였다.

언제나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숙소로 정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온 나라에 기적과 비약의 활력을 부어주시며 그이께서 끊임없이 울려가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는 동해지구의 대화학공업기지들을 련이어 찾으신 새벽길에도,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에로 하루밤사이에 단행하신 1 000여리의 강행군길에도 새겨졌다. 야전렬차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서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의 폭포가 쏟아졌고 시대를 놀래우며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사연깊은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는 부강하고 행복한 미래에로 천만군민을 부르는 애국의 호소였고 선군조선을 창조와 비약에로 떠미는 원동력이였다.

인민들이 잠에서 깨여날세라 렬차의 기적소리마저 울리지 못하게 하신 사연이며 출근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기다려 렬차에서 쪽잠에 드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 눈물겨운 이야기를 비롯하여 렬차강행군길에서 꽃펴난 수많은 혁명일화들을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는 외국의 벗들의 가슴을 또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빨찌산식강행군의 기적소리는 높이 울리였다.

이번 방문도 빨찌산식으로, 야전식으로 합시다. 화려하고 아늑한 초대소를 정할것이 아니라 렬차를 숙소로 정하고 밤에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낮에는 방문해야 할 단위들을 련이어 쉬임없이 다니며 돌아봅시다. 그렇게 해야 성에 차고 보람을 느낄수 있습니다. …

흔히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외교활동과 휴식이 동반되는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초대소나 호텔이 아니라 렬차에서 숙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상대측 외교일군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었으랴.

광활한 씨비리와 중화대지를 주름잡아 달리는 렬차안에서 식사와 잠도 설치시며 불철주야로 집무를 보시고 렬차바퀴소리는 나의 자장가이고 잠동무라고 하시며 쪽잠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외국방문도 빨찌산식, 야전식으로 단행하시여 세계정치사에 없는 신화를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행성을 진감하던 그 나날이 눈물속에 어려온다.

5년전 가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래일이면 150일전투가 끝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실 의향을 표시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15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신 그이께서 전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된 시각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겠다고 하시니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한 일군이 멀고 험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시는것만은 뒤로 미루시였으면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는 자신의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현지지도를 하러 떠날 때마다 인민군부대에 가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공장이나 농장에 가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군 한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도 나의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는것이다. 나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걷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생각한다. …

그러시고는 150일전투의 마지막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발전소건설자들을 그려보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에 렬차를 타고 현지지도하신 거리가 지난 10년동안 렬차행군을 하신 거리와 맞먹는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돌보셔야 한다고 간절히 아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달래시듯 이제는 렬차를 타고다니며 거기에서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여 그런지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려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아,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그 기적소리와 더불어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가시는 곳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께서 마침내 그 야전렬차로 선군조선을 이끌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지 않았던가.

사나운 비바람, 눈보라를 헤치며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달리던 야전렬차의 차창가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미래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따라 눈부시게 펼쳐지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 애육원…

공화국기 창공높이 휘날리는 이 강산에 울려퍼지는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를 사연깊은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떠나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애국의 기적소리, 헌신의 기적소리, 승리의 기적소리인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참으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더 깊이 새겨지며 보다 큰 행복과 영광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적인 호소가 되고 승리의 장엄한 메아리가 되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길이길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초소에서 복무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군인들은 누구나 다 한목소리로 말을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생명수가 있다고.

원래 대덕산초소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던 대덕산이 어찌하여 물걱정을 모르는 초소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주체85(1996)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신 날은 진눈까비가 내리던 궂은날이였다.

사연깊은 최전연초소길을 다시 밟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그날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수도가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하많은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물소리를 들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덕산초소에 넘쳐나는 맑은 물은 그야말로 사랑의 생명수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초소주변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오는 한 군인을 띄여보시였다.

고지에 물이 부족된다는것을 헤아려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담화를 나누시던 어버이수령님께 여기 동무들의 생활에서 제일 애로되는것이 물문제인것 같다고 말씀드리시였다.

장군님의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초소군인들의 수고를 헤아려 많은 양수설비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여 대덕산의 군인들이 물고생을 더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였다.

그때부터 대덕산초소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정속에 양수설비가 마련되여 사랑의 생명수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철철 넘쳐흘렀다.

수십년전의 잊지 못할 사연들을 추억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 군인들에게 부어주신 은정깊은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며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흐름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의 벽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문제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덕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해나갈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를 또다시 찾으시여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일당백혁명강군의 기상과 영원히 꺼지지 않을 충정의 불씨를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대덕산전초병들을 위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은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최고사령관의 제일전우, 선군혁명동지로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련면히 이어지고있다.

언제나 조국보위초소에 선 군인들을 마음속가까이에 두시고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덕산초소 군인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양수설비가 낡았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은정어린 발전발동기를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은정이 영원히 우리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넘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오늘도 대덕산초소에는 맑은 물이 흘러흐르고있다.

채 히 성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사 랑 의 명 령

이민위천은 어버이수령님의 좌우명이고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인 동시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좌우명이다.

인민을 한없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꽃피웠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여름 우리 나라 북부압록강연안의 어느 한 지구에 례년에 없는 큰물이 났을 때였다. 지금껏 본적이 없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즉시 인민군부대들에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며 동시에 압록강제방도 억년 피해를 모르게 복구할데 대한 사랑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사품치는 큰물과 폭우속에서 결사전을 벌려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수많은 인민들을 무사히 구원하였다. 그들은 곧 제방공사에 달라붙었다.

제방공사 역시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전투에 동원된 부대지휘관들도 군인들과 함께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마대를 메고 달리고 또 달렸다.

밤낮이 따로 없는 이 결사전을 목격한 그곳 인민들은 모두가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제방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였다.

도안의 책임일군들은 곧 협의회를 열고 인민군군인들에게 자기들의 진정을 담아 성의를 표시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인민들도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아침 도의 책임일군의 방으로 전투에 동원되였던 부대지휘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책임일군에게 오늘 새벽에 부대전원이 철수하였다는것을 알려주면서 작별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책임일군은 그만 아연해졌다. 잠시후 그는 벌컥 화를 냈다.

그런 법이 어데 있는가. 인민들이 지금 군인동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인민들의 성의도 알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절대로 그냥 보낼수 없다. …

그의 진정어린 말에 부대지휘관들은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바로 전날밤 큰물피해복구정형과 관련한 문제들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우리 군대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즉시 철수하도록 명령하시였던것이다.

책임일군은 목이 꽉 메여올라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매혹과 흠모의 정이 꽉 차올랐다.

그것은 책임일군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인민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메여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인민을 위해 내리신 사랑의 명령,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위대한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인민을 위한 사랑의 명령을 주고주신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신념으로 빛나는 불굴의 한생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백두에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은 그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왔다.

이 위대한 력사의 갈피에는 우리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받들어모시고 혁명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신념으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투쟁사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과 의리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김형권동지께서는 1905년 11월 4일 만경대에서 열렬한 애국자들이신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셋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도와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백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핵심으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으로 사업하시였다.

력사의 닻을 올리고 자주의 항로를 따라 전진해나아가는 조선혁명앞에는 투쟁의 험난한 가시발길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김형권동지께서는 난관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억척의 신념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혁명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불멸의 모습을 조선혁명사에 남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던 나날에 김형권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태양이시며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 때만이 겨레의 숙원인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시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군의 여러 소조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에로의 길에 나서시였다.

주체19(1930)년 8월 조국땅에 들어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시며 삼수, 풍서를 거쳐 풍산군(당시) 파발리에 이르시여 이곳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이 고장 인민들을 악착하게 탄압하던 일제순사부장을 단호히 처단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총소리를 듣고 모여온 인민들앞에서 열정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동포형제자매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남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십시다!》

그이의 힘있는 연설은 군중들을 격동시켰으며 인민들의 반일투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김형권동지의 지도밑에 무장소조는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리원군, 북청군, 홍원군 등 함경남도일대에 진출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혁명가의 신념은 가장 준엄한 시각에 검증되는 법이다.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을 전개해나가시던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무장소조원들이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체포된 후 얼마동안 함흥감옥에 있을 때였다.

법정에 나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의 죄상을 단죄하시면서 인간백정인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부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독한 죄행을 천추에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여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불굴의 기상앞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서울에서 한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밀재판을 벌려놓고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15년의 징역형을 받고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시였다.

놈들은 김형권동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독감방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쇠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먹만 한 콩밥덩어리를 한개씩 들이밀었다.

놈들이 악착하게 책동할수록 김형권동지께서는 지조를 지킴은 혁명가의 초보적인 임무이다, 맡겨진 임무를 결사코 다함이 우리의 본신임무이다, 이제부터 투쟁마당은 감옥이다, 여기에는 팔도강산도처에서 압송되여온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자,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출옥하여 조국땅 천지에 혁명의 불을 지를것이다, 우리는 누리에 불는 불이다라고 하시며 옥중투쟁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였다.

오죽했으면 일제교형리들이 마포형무소가 적색화된다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교형리들의 악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굴의 투지로 원쑤놈들을 전률케 하신 김형권동지,

《동무들, 끝까지 싸우시오. 일제는 꼭 망할것입니다.

…김일성장군은 나의 조카입니다. 앞으로 만나거든 소식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놈들에게 굴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김형권동지께서 생의 마지막순간에 동지들에게 남기신 유언이다.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날은 멀지 않았다고, 조국해방을 위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신 김형권동지이시였다.

참으로 수령이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김형권동지이시기에 놈들의 갖은 고문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쑤들을 당황망조케 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가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권동지의 한생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한생은 혁명가는 어떻게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불굴의 한생이였다.

혁명이자 신념이고 신념이자 혁명이다.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혁명적신념이다.

이것이 바로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맥박치는 심장의 고동이다.

이 고귀한 전통을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강 원 남

로동자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며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이해의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천만의 심장을 꽉 틀어잡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는 방선의 초소에서, 동음세찬 공장의 기대마다에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에서 시대의 자랑찬 영웅서사시를 창조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도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것처럼 그렇게 일해나가겠습니다.》

온 나라의 근로자들이 뜻깊은 명절을 맞고있던 두해전 5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강성원을 찾으시였다.

바로 그해 1월의 강추위와 눈보라속에서 강성원건설을 위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그 열화같은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훌륭한 문화봉사기지로 일떠선 강성원,

목욕탕과 수영장, 식당을 비롯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성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로동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봉사기지가 마련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신 미소속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는가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시는 그이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안겨와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공장을 찾아주시였으며 이 공장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꼭 같다고, 이 공장에는 정말 특별히 애착이 가고 계속 와보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비단주단을 깔아주고싶은 마음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시였다.

비단주단을 깔아주고싶은 마음,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또다시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어 리발실과 미용실, 롱구장, 탁구장,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곳에도 들리시여 로동자들이 리용할 봉사설비들과 체육기재들의 질을 가늠해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좋아하겠다고 거듭 이야기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모두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한평생 우리 로동계급을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그 정깊은 음성이 그이의 태양의 모습에, 진정넘친 말씀에 어려와서였다.

정녕 그날은 태양처럼 뜨겁고 바다마냥 깊으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다심한 우리 원수님의 혈연의 정을 심장마다에 새겨안는 잊지 못할 날들중의 하루였다.

본사기자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어

천내군 로운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한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직관물들을 게시해놓아 농장원들이 그 어느때나 학습하도록 하고있으며 일군들이 들끓는 일터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포전에 나간 리당의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농장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해주면서 모두가 올해농사결속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자고 호소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득 하

황금산의 노래 초산땅에 울려퍼진다

가슴벅찬 전변의 새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다.

고난의 흔적을 저 멀리 날려보내고 강성국가에로 힘있게 솟구치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은 자강도의 산골군들에도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진 영광의 땅 초산군,

예로부터 궁벽한 산골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있다 하여 초산이라 불러왔다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초라하기 이를데 없던 옛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이 천지개벽된 초산군을 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흥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숨결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을이다.

풍요한 이 계절은 초산군을 더욱 젊게 하고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더 높이 비약하려는 열의는 군의 어느곳에서나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찾은 2중3대혁명붉은기 초산포도술공장의 경우도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몸소 이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을 많이 끼고있는 초산군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날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일해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이곳의 원료창고들을 돌아보면 마음흐뭇하다.

강냉이창자마다에는 원료기지에서 거두어들인 강냉이들이 가득차있고 규모있게 만들어놓은 보관탕크들에도 머루, 다래를 비롯한 갖가지 산열매들이 가득차있었다. 갱도식랭장고에도 머루, 다래, 돌배들이 그득그득 보관되여있었다.

올해 도토리도 잘되여 그것을 거두어들이느라 성수가 나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열정적인가.

자체의 원료로 생산을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은 창호지공장에서도 철저히 관철되고있었다.

이 공장에 가면 군에 풍부한 닥나무의 자랑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닥나무껍질로 종이(조선종이)를 만들었으며 고려시기 조선종이는 질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다.

그 닥나무껍질을 원료로 하여 공장에서는 초산의 특산물인 창호지를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자기들이 생산한 창호지를 전국각지에 보내준다는 공장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족의 자랑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어찌 이 공장뿐이랴.

종이공장에 가면 곳곳에 조성해놓은 황철나무림의 덕으로 해마다 학습장들과 도배종이를 중단없이 생산한다는 자랑을 들을수 있었다.

초산땅의 산들은 결코 산열매들과 목재만을 주는것이 아니다.

화학공장에서는 그 산들에서 질좋은 고회석과 여러가지 광석들의 매장지를 찾아내여 갖가지 색갈의 외장재와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탄산칼시움을 짱짱 생산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세멘트공장에는 저열탄밖에 나오지 않는다던 자체탄광에서 고열탄맥도 찾아낸 결과 세멘트의 질을 한계단 높인 자랑도 있다.

그 덕에 일신된 읍거리의 전변은 참으로 희한하다.

몰라보게 변모된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병사들이 자기 집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초산땅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일화로 되였으니 이 사실 하나만을 놓고도 이 고장의 전변을 잘 알수 있다.

장공장, 고려약공장, 청년종합목장 그 어디에 가보아도 황금산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읍지구의 날벼랑중턱에 세워진 영호정자랑이 고작이던 초산땅이 가는 곳마다 천지개벽의 노래이고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이다.

발전소자랑은 또 어떠한가.

자체의 힘으로 강을 막아 건설한 큼직한 2개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방공업공장들에 보내주니 로동자들은 황금산의 노래를 흥이 나게 부르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훌륭히 일떠선 많은 문화후생시설들과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에서는 전기덕, 전기자랑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초산청년3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초산군사람들의 위훈의 노래, 자력갱생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황금산의 자랑을 우리는 읍지구의 상업봉사망들을 돌아보면서도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군안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기초식품과 청량음료, 당과류들이 보기 좋게 놓여있는 식료품상점의 매대,

여러가지 식료품을 한꾸레미씩 들고 기쁨에 넘쳐 상점문을 나서는 군안의 주민들,

명절날은 물론이고 집집에서 크고작은 일들이 제기될 때마다 여기 식료품상점의 봉사자들이 군에서 생산한 기름과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을 안고 찾아온다는 인민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집문을 열어보아도 들을수 있다.

공업품상점의 매대들에도 여러 공장들과 리용생산반들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이 가득차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다녀가신 가정용품 및 건재상점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이 있다.

초산땅에서 생산한 100여가지 상품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다.

이 목록을 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상점을 찾으시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재품과 가정용품들을 많이 가져다놓고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간곡한 유훈을 봉사자들이 어떻게 관철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고 공장들의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들을수 있다.

상점에는 군안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비누, 장판지, 망치, 톱, 호미, 미장칼, 접철과 세멘트, 목재가공품 등 가정생활과 집보수에 절실히 필요한 갖가지 제품들이 거의다 있었다.

가는 곳마다에 자기 고장의 얼굴이 있었다.

물론 아직은 풍족하거나 만족하다고는 말할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서 제힘으로 이루어놓은 생활이여서, 누구나 다같이 골고루 맛보는 기쁨이고 누리는 행복이여서 우리에게는 이 생활, 이 행복이 이 세상 그 어떤 향락보다 귀중한것이다.

이 모든 행복의 열매들은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초산군일군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이고 의지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강자로 자라나게 하였는가.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찾고 또 찾으시여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신 어버이장군님,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의 불길이였다.

그이께서 키워주신 담력과 배짱의 분출이였다.

하기에 초산사람들은 심장으로 웨친다.

— 우리는 자강도사람이다!

우리 혁명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는 승리의 돌파전에서 우리 장군님의 정든 고장으로 온 세상에 이름떨친 자강도,

눈보라 휘몰아치는 령길에서 몇걸음 가시다가는 돌아서시여 손을 저어주시고 다시 가시다가 돌아서시여 또다시 손을 저어주시면서 자강도를 믿는다고 하신 그 말씀, 성에불린 야전차의 차창에 뽀얀 눈갈기 날리며 머나먼 전선으로 떠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이야기가 천만의 심장을 오늘도 뜨겁게 두드려준다.

— 우리는 자강도사람이다!

가슴속에 신념의 정대로 쪼아박은 이 부름은 그대로 힘이였고 의지였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본다.

황금산의 노래 울려퍼지는 초산땅의 기적과 전변의 원천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초산땅에서 일어난 기적과 전변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초산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결사관철의 신념과 자력갱생의 정신이 차넘치고있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그들에게는 사소한 침체와 답보,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애국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길에서 밤을 패며 일해도, 시간을 쪼개가며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군의 책임일군들로부터 로동자,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맥박으로 고동치는 애국충정의 불덩어리가 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값높은 창조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그렇다.

소리치며 일떠서는 초산땅의 희한한 전변을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철범
본사기자 김철혁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는 초산포도술공장

군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초산직물공장

↑초산장공장에서 기초식품 등 질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
←군안의 공장들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식료품을 받아들고 기쁨에 넘쳐있다.

자체로 건설한 초산청년2호발전소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3대혁명소조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에서

화력탄증산투쟁에로 부르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3대혁명전위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직동과 천성, 령대의 지하막장 어디를 가보아도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앙양된 모습들이 보인다.

탄전에 타오르는 위훈의 불길, 창조의 불바람은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3대혁명소조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의 송풍기적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탄광들에 나간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소조원들에게 화력탄증산투쟁의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는것과 함께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발휘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3대혁명전위들의 투쟁위훈도 알려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게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파견단위의 당조직들이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소조원들을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파견단위 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전형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한것이다.

시대의 영웅인 김유봉동무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교무추동하는 이곳 당조직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일군들과 탄부들, 3대혁명소조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이곳 당조직들에서는 령대탄광 6갱 채탄5중대 당세포비서였던 로현범동무를 비롯하여 화력탄증산투쟁에서 발휘되는 당원들과 탄부들의 영웅적소행을 통한 교양사업도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에로 추동하는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혁명적열의가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당조직들에서는 이미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소조원들이 당면한 화력탄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잡아쥐고 끝까지 실현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조건보장을 앞세우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련합기업소안의 당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콤퓨터를 비롯하여 이미 갖추어놓은 설비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해주는것과 함께 행정일군들이 설비와 자재, 원료보장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조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서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키였다. 또한 모든 일군들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소조합숙건물보수와 부식물, 땔감을 마련해주는 사업, 그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파견단위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적극적인 지도, 아낌없는 방조와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기적과 혁신에로 떠밀어주는 원동력이 되였다.

천성청년탄광의 소조원들은 많은 설비와 자재를 절약하면서 버럭운반의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는 삭도건설에서 3대혁명전위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그들은 탄광의 기술자들과 함께 하루에도 몇차례씩 산발을 오르내리면서 삭도건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20여개의 구조물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고 삭도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2.8직동청년탄광과 령대탄광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직동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동형레루맞댐용접기와 전차속도조종장치를 창안제작하고 나노복합첨가제로 새로운 성형폭약을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화력탄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령대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천정기중기원격조종체계와 전력소비가 적은 합리적인 전차전조등을 생산현장들에 받아들여 호평을 받고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전차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그 도입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우리도 평양의 불빛을 지켜선 탄전의 전위들이다!

이것이 순천지구의 탄전에 울려퍼지는 3대혁명전위들의 신념의 맹세이다.

당조직들의 송풍기적역할에 의하여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오늘도 불같은 열정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화력탄증산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기적창조의 불길,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한영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라남구역체신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신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체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체신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높뛰는 심장에 받아안은 라남구역체신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소장 한영옥동무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따져가며 체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보다 높이 세웠다.

《물론 목표는 아름찹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힘과 지혜를 합쳐 떨쳐나서면 꼭 해낼수 있습니다.》

초급당일군에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는 소장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초급당일군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소장을 바라보았다.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체신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소장은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한개 단위를 책임진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하였다. 그 나날 그가 해놓은 일은 그 얼마나 많은것인가.

소장은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빈터나 다름없던 자리에 2층짜리 체신소청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웠고 온실이며 편의봉사시설도 그쯘하게 꾸려놓았다. 그 나날 체신소는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고 모범체육단위로 도는 물론 전국에 소문을 내였다. 그러한 날과 달이 흘러 어느덧 소장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다.

이제는 그만하면 쉬여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오늘의 성과에 마음의 탕개를 늦추고있던 소장의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하는것이였다.

이윽하여 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체신소에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많습니다. 물질적토대도 그쯘합니다. 목표는 비록 높지만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결의목표를 조항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격정에 넘쳐 말하는 소장의 손을 초급당일군은 덥석 잡았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결의목표가 새로 높이 세워졌다. 그것은 그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초급당위원회 결의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일군들이 결의목표수행의 앞장에 섰다.

체신설비들과 운영수단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의목표들을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결의목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체신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구역의 곳곳을 쉬임없이 다녀왔다.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이동통신기지를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꾸리였다. 그리고 수십리구간의 빛섬유케블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합리화안들을 제때에 받아들였다. 자체의 힘으로 우편통신체계를 더욱 완비하였으며 출판물과 우편물의 발송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우편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방송설비들의 현대화를 진행하여 음질을 높이고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으며 태양빛을 리용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통신을 중단없이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보화를 실현하여 선로감시와 현업업무를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였다.

이 나날 체신소는 좋은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여 도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지난 8월 이곳 체신소에서는 전국의 체신부문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체신의 현대화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이룩한 성과도 컸지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체신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 참가자들에게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체신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놓은 다음 다시 만납시다.》

소장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후대들에게 소중히 물려줄 인생의 재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인민은 없다.》

당보에 실린 기사 《변함없는 애국충정으로 인생길을 수놓아온 참된 인간》의 주인공인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한생에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부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며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원리탄광 갱장 리준필동무는 강동명동무야말로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재부를 가지고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후대를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재부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조국을 위해 한몸바쳐 일했다는 자부이고 절세위인들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한생토록 변함없는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긍지일것이다.

강동명동무의 삶에는 그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어려있다. 꽃나이처녀시절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면서 그는 자기에게도 따뜻이 품에 안아 키워주며 엄하게 매도 들고 바른길로 가도록 이끌어줄 어머니가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런 어머니를 심장속에 간직하고, 어머니당의 참된 딸로 살아갈 불타는 일념안고 곧바로 달려온 인생길이였기에 그 삶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로 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재부, 이 말을 외워보며 자신의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나에게도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넘겨줄 그러한 재부가 있는가.

언제나 강동명동무를 인생의 거울로 삼고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정양소 소장 김옥선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것이겠는가.

강동명동무의 삶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자기 집이라는것을 모르고 자란 그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공장합숙의 12호실은 친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행복한 집이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12호실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살았다.

남편을 따라 이사를 간 후에도 그는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마다 늘 그 12호실을 그려보군 하였고 자진하여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닦아나가는 도로를 12호실로 향하는 길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잇닿아있는 행복한 삶의 뜨락으로 여기며 그 길에 자기의 인생을 깡그리 바치였다.

자기가 밤새워 닦아놓은 도로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시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더없는 행복감과 기쁨에 휩싸였던 강동명동무, 그의 인생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것만 같다.

언제나 절세위인들을 그리며 그 길에서 인생의 보람도 영광도 찾는, 하여 령도자의 기억속에 영생하고 사회와 집단의 존경과 사랑속에 사는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큰 재부중의 하나이라고.

나도 강동명동무처럼 살겠다. 강동명동무와 내가 선 초소는 서로 달라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공민적량심과 의무에 있어서 다를것이 무엇인가. 한생을 강동명동무처럼! 이 말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언제나 자신과 가정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공무과 부원 황충성동무는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강동명동무는 작업반원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일터를 지키자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최전연의 전선길이여서 총을 들고 지키겠나요, 수천척 지하의 막장길이여서 동발나무로 지키겠나요. 량심밖에 없지요. 량심을 지키는 길이 곧 일터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통해서도 자기 일터, 조국을 지키는 길에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가는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다.

그토록 량심을 귀중히 여긴 강동명동무였기에 자식들에게 넘겨줄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생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걸어온 인생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였다고 생각한다.

순결한 량심,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정신적재부가 아니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돈과 재산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부로 되고있으며 돈을 위해서는 량심도 서슴없이 버려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지론이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며 패륜패덕을 낳고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주의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십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터를 깨끗한 량심으로 지켜온 강동명동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나 따라배우고 본받아야 할 시대의 전형으로 빛을 뿌리며 영광의 단상에 오르고있다.

나도 강동명동무처럼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떳떳한 삶이 될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소중히 물려줄 인생의 재부로 될수 있도록 살아나가겠다.

신 현 규

순결한 량심의 인간이 되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정치적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량심과 도덕적의리에 기초하여 생활화될 때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애국충정으로 인생길을 수놓아온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고있다.

개천철도국 개천객화차대 참모장 장원영동무는 강동명동무야말로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일터를 굳건히 지켜온 순결한 량심의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참다운 애국은 말보다 실천에 있다.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있고 인생의 값높은 절정에 오를수 있다.

강동명동무의 인생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도 가정을 가진 녀성이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이다. 하지만 그는 먹을것도 부족하고 땔것도 부족한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자기의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강동명동무에 대한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과학자는 연구성과로, 용해공은 강철증산으로, 농장원은 풍요한 가을로 그리고 우리는 도로를 더 잘 관리하는것으로 나라를 받들지.》

바로 이런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강동명동무였기에 그는 자신의 안락과 가정보다도 일터를 더 중히 여길수 있었던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였다. 그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였으며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였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갈수 있는것은 아니다. 자기가 맡은 도로에서 쓰러질지언정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철한 각오는 강동명동무와 같이 량심을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들만이 가질수 있는것이다. 저 하나의 리익이 아니라 오직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강동명동무처럼 언제나 자기 맡은 일에 진정을 바치는 순결한 량심의 인간이 되겠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로동자 김복남동무는 강동명동무에 대한 기사는 사회적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삶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것보다도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강동명동무가 수십년간 도로를 쓸면서 맞고보낸 사람들속에는 학력을 뽐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다른 직업이나 직위를 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강동명동무가 그들 못지 않게 자부하고있은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였다.

누구나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자기 몫이 있다는 자각, 자기 일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강동명동무였기에 그는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었고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할수 있었다.

언제나 자기 일터를 사랑해온 강동명동무처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할줄 아는 량심과 의리의 인간이 되겠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일터에 바치는 진심이 곧 애국

숙천군 사산농장 관리위원장 리명덕동무는 강동명동무의 소행에서 제일 감명깊은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터에 성실한 땀을 바치는것을 삶의 더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여기는 순결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터에 바치는 진심이 다름아닌 애국이다.

매 공민들은 조국앞에서 한가지씩의 일감을 맡고있다. 그것을 얼마나 훌륭히 해내는가 하는데 그 인간의 애국심의 높이가 비끼게 되며 그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용하는 도로를 나라의 얼굴, 자기 살점처럼 여기면서 사시장철 비바람속에서, 눈보라속에서, 뙤약볕속에서 집뜨락을 쓸듯, 집터밭을 가꾸듯 정성을 다한 강동명동무의 모습에서 나라의 쌀독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일본새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새기게 된다.

강동명동무처럼 포전을 사랑하고 가꿀 때 우리 논과 밭에는 그 어떤 폭풍도 두렵없이 알찬 이삭들이 맺히게 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겠다.

신의주마이싱공장 마이싱직장 책임기사 송정희동무는 왜 엄마는 도로에서 계속 청소만 하는가고 푸념을 하다 잠든 자식들의 머리맡에 앉아 《자기 일을 사랑한다는것이 뭔지 알게 될 때면 너희들도 어머니마음을 리해할거다. 어머닌 도로를 떠나 못살거던.》라고 속삭이는 강동명동무의 모습이 자꾸만 뇌리에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리해 못하는 철없는 자식들의 투정앞에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으랴. 하지만 그밤 강동명동무는 눈가래를 찾아들고 조용히 문밖을 나선다.

자기 일터를 끝없이 사랑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굽힘없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티없이 깨끗하게 살수 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참된 인생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새겨줄것이다.

나도 그런 참된 공민, 참된 어머니가 되겠다.

본사기자

나무모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시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

신계군농기계작업소 지배인 리영철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해야 하며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신계군농기계작업소가 요즈음 소문없이 일을 잘하고있다.

불과 2년동안에 작업소의 안팎이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생산능력이 배로 높아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도 개선되였다.

이처럼 일이 잘되는 단위에는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있는 법이다.

마음의 문부터 열고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장 **김용렬동무**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가 작업소에 새로 배치된 우리 지배인동지를 처음 만난 곳은 뜻밖에도 저의 집이였습니다.》

두해전 리영철동무가 지배인으로 배치되여왔다. 그즈음 김용렬동무는 기술혁신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 공장에 가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무렵이였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작업소지배인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하는 생각도 순간이였다. 스스럼없이 방안에 들어선 지배인은 김용렬동무에게 작업소에서 일해온 경력과 가정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어느덧 방안에 단란한 가정적분위기가 차넘쳤다.

김용렬동무는 허물없이 지배인에게 자기가 생각해온 문제들을 터놓았다. 4.15기술혁신돌격대의 력량을 새로 보충하는 문제로부터 착상현상모집과 그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지배인은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만이 아니였다.

지배인은 농기계작업반 고관수동무를 만나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고 살림집을 번듯하게 보수해준데 이어 그를 온 군이 다 아는 기능공이 되도록 힘껏 도와주었다.

그러한 지배인을 종업원들뿐아니라 가족들도 우리 지배인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나 리영철지배인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오늘 작업소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제기되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와 각종 부속품생산은 물론 군의 농업생산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는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났다.

그 비결에 대하여 가공작업반 반장 리일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두해동안에 우리 작업소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현대화의 높은 수준에 올라설수 있은것은 지배인동지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설비현대화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배인은 그 문제를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소의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기로 결심하였다.

어느날 작업반장과 마주앉은 지배인은 작업반원들의 구성상태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대하여 물었다. 사실 작업반에는 기계속내에 밝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속품도 척척 가공해내는 기능공들이 적지 않았다.

지배인이 작업반장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들이 설비현대화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합시다!》

작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분발해나섰다. 애로도 많았고 자재도 부족하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플라즈마절단기와 중주파유도로, 성형알판생산설비 등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작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10여개 작업반의 설비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우리는 이곳 작업소를 떠나며 다시금 확신하였다.

일군들이 종업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제끼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최대로 분출시킬 때 그 어느 일터에서나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는것을.

특파기자 김 천 일

깐진살림군

흥남제약공장 자재창고 창고장 리차선동무

깐진 일본새를 지니고 의약품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매일과 같이 륜전기재의 운전대를 틀어잡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과 원료들을 제때에 날라주고있다.

창고들에서 원자재들을 어느때든지 신속정확히 계량계측하여 현장까지 날라다줄수 있게 원료, 자재들과 갖가지 용기들을 규모있게 정돈해놓으면서 모든 창고원들이 창고관리를 알뜰히 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그는 자체의 힘으로 온실을 지어놓고 사철 남새를 생산공급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수 일

불타는 애국충정과 지성을 다 바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전투에 참가하였던 직맹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시면서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고, 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는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함께 수많은 공사과제들을 맡아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방대한 건설과제를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내는데 크게 기여한 1000여명 직맹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직맹돌격대원들은 지난 3월 건설장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인민군군인들처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1400여m의 석축공사와 근 1200m의 옹벽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총연장길이 2600여m의 위성1다리와 위성2다리구간의 제방공사를 60여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1700여m의 도로형성, 4만여㎡의 살림집주변지대정리, 1000여그루의 나무심기와 오수정화장공사, 병원도로공사, 걸음길블로크깔기 등의 공사과제를 맡아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특히 직맹돌격대에서는 지난 8월초 연건평 1400여㎡인 4동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온실건설을 통채로 맡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완공하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직맹돌격대지휘부에서는 이 기간 여러차례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진행하여 전투장마다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으며 직맹이동해설강사들을 비롯한 초급선전일군들로 경제선동대를 무어 현장에서 화선식경제선동, 직관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림으로써 작업현장들의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건설의 나날 직맹돌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들의 충정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였다.

성, 중앙기관대대 대대장 량병국, 라선시대대 대원 배승혁, 최광천, 리성훈, 평양시대대 대원 최영란, 평안북도대대 대원 모금석, 남포시대대 대원 김성심동무를 비롯한 많은 돌격대지휘관들과 대원들이 공사기간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과 지성을 바치였다.

남포시대대 대원 최철동무는 영예군인으로서 불편한 몸이지만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에 자진하여 달려나와 부업밭관리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돌격대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였으며 황해남도대대 대원 원현호동무도 영예군인의 몸으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남포시대대 대원 김선희동무는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여 남들과 꼭같이 일하면서도 밤에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누이다운 심정으로 돌봐주었으며 평안남도대대 대원 정창세동무는 공사 전기간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작업과제를 두몫, 세몫씩 맡아 해제껴 돌격대원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성, 중앙기관대대 대원들인 백근실, 원영실, 김경림동무들은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건설장에 스스로 달려나온 첫날부터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묵묵히 일하였으며 힘있는 지원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또한 직맹돌격대려단 군의장 리철남동무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환자치료전투를 힘있게 벌려 수많은 환자들을 완쾌시키였다.

황해남도대대 돌격대원들인 리오성, 류순희부부는 대대전투원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마련한 후방물자를 여러차례 지원하고 10여명의 대원들에게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으며 평안북도대대 대대장 리성일, 함경남도대대 대대장 로명철동무도 힘있는 지원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의 문화정서생활과 식생활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 평양시대대 대원 강지성, 원종성, 황해남도대대 대원 전선화동무를 비롯한 많은 돌격대원들이 깨끗한 충정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과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직총중앙위원회와 각 도직맹위원회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과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특히 평안북도직맹위원회와 평안남도직맹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전투장에 보내줌으로써 돌격대원들이 방대한 공사과제를 제기일내에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내각, 평양시, 함경북도, 황해남도직맹위원회들에서도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에 참가했던 직맹돌격대원들의 투쟁성과와 아름다운 소행은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애국충정과 열정의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인민의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영웅적진군에 계속 박차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먹이풀생산을 담보한 토지개량작전

세포군사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실현에 앞장선 대성지도국, 인민봉사총국, 보건성, 륙해운성, 대외경제성돌격대를 비롯한 세포군사단의 많은 단위들에서 올해 자주꽃자리풀, 붉은토끼풀, 오리새 등을 정보당 40t수준에서 생산하여 먹이풀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초 사단앞에는 올해안으로 근 2 000정보의 먹이풀판을 조성하여 정보당 수십t의 풀을 생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사단지휘부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하였다. 대부분이 잡초도 뿌리내리기 힘든 산성화된 질흙땅이였던것이다. 사실 사단의 모든 돌격대들에 분담하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내밀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대로 세상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중대하고 보람찬 일을 해당 단위들에 떠맡기고 과제수행정형을 따져보며 독촉이나 하는 식으로 내밀어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었던것이였다.

—당의 뜻대로 일군들이 생눈길을 헤쳐나가는데서 척후병이 되여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나가자.

이렇게 결심한 정치일군은 모든 일군들이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심정으로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먹이풀판조성사업을 내밀 때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였다.

사단일군은 토지개량전투를 방법론있게 조직하면 얼마든지 먹이풀생산을 담보할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사단지휘부가 직접 틀어쥐고 내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그는 흙깔이전투를 맡아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엄청난 량의 석탄재, 모래흙이 있어야 흙깔이를 질적으로 하여 통기성과 물스밈성이 좋아지도록 토양의 물리적성질을 변화시킬수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런 흙깔이재료가 전혀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손쉽게 확보할수 있는 석비레와 모래를 리용하자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때 그 일군은 영양원소들이 없는 재료로는 절대로 흙깔이를 할수 없다는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 석탄재를 실어들이자는 문제도 제기되였지만 필요한 량을 운반하자면 많은 품이 드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씨붙임적기까지 놓칠수 있었다. 그는 주변에서 흙깔이재료를 찾아낼것을 결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방조를 받으며 이 고장의 지질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일군들과 함께 온 산판을 발이 닳도록 오르내리였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달라붙으면 성공하는 법이다. 그는 끝끝내 수십가지의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는 흙깔이재료매장지를 찾아냈다.

일군들은 즉시 매장지에 굴착기를 배치하고 모든 단위들에 있는 자동차들로 집중수송편대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에서는 한달동안에 4만여t을 실어내여 흙깔이를 질적으로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토양구조를 따져가며 그에 알맞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한것도 경험적이다. 사단이 맡은 개간지는 비가 오면 질어지고 가물때에는 굳어져 습해와 가물피해를 많이 받군하는 땅이였다. 그대신 다른 토양에 비하여 영양물질저장과 수분보유능력이 크므로 토지개량을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만들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런 조건에 맞게 유기질비료생산에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우선 부식질함량이 많으면서 부실부실한 거름원천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산에 있는 부식토를 많이 리용할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습지와 오래전에 리용했던 방목지, 집짐승우리, 산골짜기의 바닥흙을 모조리 파서 운반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석탄재에 진거름을 섞어서 포전에 실어낼 계획도 세우고 동시에 내밀었다. 결과 먹이풀판에 수만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게 되였다. 다음으로 모든 단위들에서 기관, 기업소들과 련계하여 린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가금배설물을 집중수송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보건성돌격대는 300t, 인민봉사총국돌격대는 250여t, 대성지도국돌격대는 100여t 등 많은 단위들에서 가금배설물을 확보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

지대적특성에 맞게 배수로치기를 앞세운것도 은을 내였다. 토지개량전투를 조직하면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배수로치기에 품을 넣는것이였다. 그것은 사단적으로 습지면적이 많아 비가 내리면 먹이풀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였다. 치밀한 작전에 따라 륜전기재들과 로력을 집중하여 배수로치기를 앞세우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배수로치기를 하면서 뒤따라 경사면과 뚝에 돌쌓기와 잔디입히기를 하도록 하였다. 결과 연 90㎞의 배수로가 새로 생겨 습지에서도 먹이풀생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렇게 조건이 불리할수록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되여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대하고 방법론있게 먹이풀판조성전투를 내밀었다. 올해 사단적으로 많은 단위들이 먹이풀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자강도려단 중강군대대에서

모사름률을 어떻게 높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그것이 실지 은을 낼수 있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 모옮겨심기방법은 포전에 직접 씨를 뿌려 먹이풀판을 조성하는것보다 품이 많이 든다. 특히 포전에서의 사름률을 높이는것은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강도려단 중강군대대에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포전에 옮겨심는 오리새모의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여 풍요한 먹이풀작황을 마련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분발해나선 류진수, 김철진동무들을 비롯한 대대일군들은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련계밑에 그 해결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그들은 모판에 씨를 뿌린 때로부터 40~50일동안에 오리새모를 키가 15㎝, 본잎이 5매정도 되게 자래운 다음 옮겨심어야 사름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는것, 만일 이보다 지내 크거나 작은 모를 리용하면 모살이기간이 길어지고 모자체의 영양상태와 뿌리기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기때문에 좋은 결실을 거둘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였다.

결국 지적된 날자동안에 오리새모의 키와 잎수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포전에서의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과학적방도를 찾아쥔 일군들은 즉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우선 적지를 바로 정하고 질좋은 재료를 리용하여 모판을 만들며 보리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모를 포전에 옮겨심을수 있게 오리새씨앗을 뿌리도록 하였다. 또한 모판관리에 책임성이 높은 돌격대원들을 선발배치하고 그들에게 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는 등 모를 충하없이 실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특히 대기온도가 18℃이상 되는 시기부터는 오전 10~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람쏘이기를 하여 어린 모를 단련시키도록 하였다. 모판관리를 맡은 돌격대원들도 드넓은 세포등판을 하루빨리 사회주의청춘대지, 대초원으로 전변시킬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기르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나갔다. 결과 대대에서는 6월 중순부터 일제히 모옮겨심기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되였다.

아무리 모를 잘 키웠다고 해도 옮겨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지 못하면 품들인 보람이 없게 된다. 더우기 례년에 없이 심한 가물이 지속되는 속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대대일군들은 골째기와 유기질비료주기를 책임적으로 하며 모뜨기와 옮겨심기, 물주기, 흙덮기 등의 작업공정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도록 돌격대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그리고 모든 돌격대원들이 심어가는 모마다에 개척자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도록 이신작칙하였다. 뿐만아니라 품들여 심은 모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게 하며 포전에 모를 옮긴지 한주일정도 지나서부터는 잎덧비료주기를 진행하도록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해나갔다.

애쓴 보람은 있었다. 포전에 옮겨심은 모들의 모살이가 빨리 된것은 물론 뿌리들이 인차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여 생육상태도 하나같이 좋아졌다. 결과 잡판목뿌리와 돌들이 많은 경사지포전에 풍요한 먹이풀작황을 펼쳐놓은 대대는 올해의 풀판조성에서 려단적인 본보기단위로 될수 있었다.

능숙한 수완과 대상건설실적

인민보안부려단 함경북도인민보안국대대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보안부려단 함경북도인민보안국대대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착공하여 6개월동안에 당장이라도 살림을 할수 있게 1동 2세대 살림집 11동을 완공하고 근 100마리씩 기를수 있는 소, 양우리건축공사를 질적으로 끝내여 려단적으로 소문을 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여 건설자재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실을 놓고보자.

제힘을 믿고 떨쳐나 골재원천을 찾은 일군들은 수송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골재를 건설현장에 실어들여 모래와 자갈, 블로크를 생산하자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적은 로력으로 많은 건설자재를 와닥닥 확보할수 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대대장 김덕준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그것은 골재속에 쓸모없는 막돌이 많이 섞여있어 필요한 건설자재를 확보하자면 계획보다 엄청난 량을 실어야 했기때문이였다.

—혁신창조의 원천은 당의 뜻대로 원가계산을 바로하여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실리를 얻을수 있게 작전하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리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일군들과 함께 골재채취장으로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는 골재무지를 파헤치고 블로크생산용혼석과 건설에 리용할 모래, 자갈, 쓸모없는 막돌량을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모래, 자갈을 선별하고 블로크를 생산하는 장소를 어디에 정하는가에 따라 채취장에서의 골재수송량을 40%로 줄일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리였다. 한자동차분의 블로크를 생산하자면 골재가 3대분은 있어야 하였다. 모래나 자갈도 마찬가지였다. 현지에 생산기지를 꾸리면 얼마든지 수송원가를 줄이면서 건설자재를 짧은 기간에 확보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그는 즉시 력량을 새롭게 편성하고 립체전을 벌리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장가까이에는 블로크, 모래, 자갈생산기지가 꾸려지고 건설현장에서는 기초파기공사가 시작되였다. 대대정치지도원 리철호동무가 골재장을 맡고나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대상공사를 앞당겨 끝내자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앞채를 뗐다. 10여명의 군인건설자들이 매일 1 000여장씩의 블로크를 생산할 때 혼석채취장에서도 혁신이 일어났고 운전사들도 수송실적을 올리였다. 결과 짧은 기간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모두 현장에 쌓아놓고 건축공사에 들어설수 있었다.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성을 높인것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일군들은 필요한 건설자재의 전량을 한가지도 빠짐없이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를 지을 곳에 쌓아놓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춘 후 블로크, 모래, 자갈,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는 물론 작업공구의 질과 수량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빈틈이 없을 때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박춘기, 안호, 김성호동무들을 비롯한 명천군, 회령시, 김책시인민보안서중대의 지휘관들은 자기 단위들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대상건설과 관련한 기술적문제들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반복시공을 없앴다. 그리하여 모든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능숙한 수완으로 타산을 치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대상건설을 내밀 때 실적이 높아지기마련인것이다. 대대가 대상건설에서 앞선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더 좋은 먹이풀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대성지도국돌격대원들

자력갱생기지건설의 선구자

황해북도려단 정치일군 리상준동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착공과 함께 평강군 상원리의 인적드문 골안에서 자력갱생의 첫 마치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석회로에서는 수천t의 소석회가, 비료생산기지에서는 100여t의 질좋은 흙보산비료가 생산되여 황해북도려단의 먹이풀판으로 나가고 오늘은 새로 일떠선 세멘트생산기지에서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를 안아온 주인공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개척자, 선구자가 될 드높은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기지건설의 기치를 남먼저 추켜든 황해북도려단 정치일군 리상준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데서 척후병이 되여야 합니다.》

두해전 겨울 흰눈덮인 개간지에 도착하여 풀판조성구역을 빠짐없이 밟아보는 리상준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너무나 척박한 땅을 개량하자면 많은 량의 소석회가 필요하였다. 도책임일군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량의 소석회를 해결하자고 제기하는 일군들이 대부분이였다. 하지만 리상준동무는 자체로 큼직한 석회로를 건설하여 소석회문제를 제힘으로 해결할 결심을 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현지주민들까지 이 고장에는 석회석매장지가 없다,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해나서자 일군들은 정치일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어이 이 땅을 기름진 먹이풀판으로 만들자.

리상준동무의 절절한 목소리는 일군들에게 새 힘을 안겨주었다. 그는 무릎을 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끝끝내 석회석매장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였다. 석탄도 해결해야 하였고 석회로건설도 완성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한의 석탄이라도 더 빨리 해결하여 운반하기 위해 달리는 화물렬차우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며칠밤을 새우며 무너진 석회로를 다시 쌓기도 하였고 캐낸 석회석을 주먹보다 작은 덩어리들로 까느라 깊은 밤에 전투를 벌리기도 하였다. 헌신으로 이어온 이런 낮과 밤이 있어 드디여 석회로에서 질좋은 소석회가 쨍쨍 생산되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리상준동무의 헌신속에 생산을 시작한 첫 자력갱생기지였다. 그러나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그는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켜 석회로의 페열로 100여t의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기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 려단의 먹이풀판조성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하였다.

리상준동무가 또다시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을 발기해나섰을 때였다.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에도 그는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때식을 번지면서도, 쪽잠을 자면서도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설비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위들을 찾아 먼길을 떠나군 하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지개벽된 세포등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충정의 보고를 드리려는 일념뿐이였다. 이런 그의 피타는 노력이 있어 려단에는 년간 수천t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기지가 건설되여 동음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앞채를 메고 달리는 선구자가 있으면 전대오가 힘차게 전진하는 법이다.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간직한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블로크와 외장재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세포등판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자력갱생기지건설의 앞장에 선 리상준동무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개척자된 긍지

당의 웅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 불같은 마음을 안고 드넓은 세포등판에 애국의 땀과 넋을 아낌없이 바쳐온 인민봉사총국돌격대의 녀성소대원들,

힘겨울 때도 많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하루빨리 완공할 일념안고 흐르는 분과 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래일을 마중가는 이들이다.

뜨거운 추억을 안고 풍요한 먹이풀판에서 떼지어 흐르는 집짐승들을 바라보는 그들 모두의 얼굴마다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자연개척자가 된 남다른 긍지와 자랑이 한껏 비껴있다.

동지를 위해 새겨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욱

열달과 열여섯해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군사임무수행중 심한 부상으로 하반신마비진단을 받은 조혁철동무가 다시 제발로 대지를 밟게 된것은 열달만이다.

그 열달의 첫 기슭에서 조혁철동무는 한생토록 못 잊을 고마운 사람들을 알게 되였다.

그들이 바로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조성무동무의 아들 조혁철이 중태에 빠져 수도의 한 병원으로 실려온것을 알게 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부상을 입은지 며칠만에 처음 의식을 회복한 조혁철동무의 눈에 아버지처럼 정다운 그들의 모습들이 비쳐졌다.

치료전투의 나날 그의 침상곁에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정이 날마다 뜨겁게 와닿았다.

의료일군들의 정성과 그들의 사랑이 불사약으로 합쳐져 조혁철동무는 열달만에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또 16년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없이 바뀌였다.

조혁철동무의 아버지 조성무동무도 8년전에 다른 일터로 옮겨갔다.

하지만 대외문화련락위원회에서는 특류영예군인인 조혁철동무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하고있다.

그가 훌륭한 처녀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룰 때에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형제일, 자기 자식일처럼 생각하고 모두 떨쳐나 진심을 다하였으며 영예군인가정에 귀여운 옥동녀가 태여났을 때에는 애기옷과 기념품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기도 하였다.

16년세월 영예군인의 생활속에는 언제나 그들이 함께 있었다.

선교구역 산업1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집을 찾을 때마다 그들이 안고간 수많은 보약이며 가정용품, 식료품들을 어찌 다 계산할수 있으랴.

그보다 더 계산하기 힘든것은 그를 위해 바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진정이다.

올해에도 류경일, 조철룡, 강현규, 윤경주, 한정철, 정은아, 김설향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명절들에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가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었다.

영예군인을 일으켜세운 기적의 열달에 남모르는 진정의 열여섯해를 이어온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나날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독자의 편지

고마운 사람들

사람들은 누구나 말합니다.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라고.

저 역시 일어나 앉기조차 힘들어하던 몸이였지만 고려의학과학원 일군들과 연구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머지않아 대지를 활보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난시기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사실과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니 펜을 들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회복되기 힘들다고 하던 질병을 고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수 있은것은 연구사선생님들의 의술이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입원한 첫날 이곳 책임일군들은 저를 찾아와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으며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오군 하였습니다. 또한 침구연구소 연구사들은 치료주기를 한번이라도 어기면 안된다고 하면서 휴식일, 명절날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렸으며 원기회복에 좋은 보약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안겨주었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뜨겁고 열렬한 인간적사랑, 동지를 위하는 숭고한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이들의 진정이야말로 27년동안 잠자던 저의 신경을 소생시켜준 명약이 되였으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두번다시 첫걸음마를 떼도록 이끌어준 따뜻한 손길이였습니다.

정녕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는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이 있어 우리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아름답게 피워갈것입니다.

문천시 삼오동 29인민반 홍금표

누구나 기다리는 우편통신원

은률군체신소 장련체신분소 우편통신원 조명재동무는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우리 당 출판물과 우편물 배포와 송달봉사를 신속정확히, 친절하게 하여 우리 우편통신원이라고 불리우고있다.

30여년동안 체신부문에서 일하고있는 그는 우편통신원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하루같이 우편통신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때로는 밤길을 걸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주소가 달라진 편지의 주인을 찾아 집집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도 많았으나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거나 다음날로 미루어본적이 한번도 없다.

10리가 넘는 작업반, 분조들에까지 찾아가 당보에 실린 내용들을 알려주고 조국보위초소에 나간 자식들의 편지를 부모들과 함께 읽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체신소에까지 가기 힘들어하는 농장원들의 전화부탁도 편지부탁도 웃으며 들어주군 한다.

이런 조명재동무를 장련리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리며 반겨맞군 한다.

로농통신원 배선양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앞장선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3(1994)년 11월 1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였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철의 론리로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과 그 완성을 위한 영원불멸의 대강, 대헌장이다. 이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던 사회주의가 승리의 새로운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그려보며 바란 사회는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이다. 인류의 이 세기적숙망을 완전히 풀어주는 리상사회가 다름아닌 사회주의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난것은 결코 자본주의가 우월한 사회이기때문이 아니였다.

그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이였다.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압력에 겁을 먹고 안으로는 부르죠아사상문화에 오염된 사상적변질체로서 생겨난 기회주의는 사회주의운동의 대렬내에 깊숙이 뿌리박고 유기체를 병들게 하는 비루스처럼 사회주의를 수십년간 부패변질시켜왔다. 그 최종결과가 바로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로 나타났다.

력사발전의 중대한 시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제국주의대변자들에게 자본주의가 죽어가는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번영하는 사회라고 떠벌일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면서 마치도 자본주의가 《사회발전의 최종단계》이며 《인류의 리상》으로 되는것처럼 요란하게 미화분식하였다.

전세계를 자본주의로 뒤덮기 위한 《경제의 일체화》바람, 《세계화》의 광풍이 세차게 불어쳤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세력이 떼준 처방대로 미국식《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서방나라들의 다국적기업체들은 세계적규모로 확대된 자본주의시장들에 뿌리박고 더욱 비대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더욱더 드러났다. 제국주의의 략탈적본성도 달라지지 않았다. 변한것이 있다면 제국주의의 신식민지화수법, 착취와 략탈방법이 보다 교활해진것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역적범위를 벗어나 세계적범위로 확대된것이다.

그 이후에 펼쳐진 현실이 모든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쏘로스를 비롯한 미국의 투기업자들이 금융의 《자유화》가 실현된 여러 나라들에 뻐젓이 들어가 금융통제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약점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환률조작을 함으로써 금융위기들을 련속 일으켰다.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들에서 일어난 각종 금융위기들은 순식간에 지역적범위를 벗어나 세계경제발전에 타격을 주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가 조성되여 정권교체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실업과 빈궁이 심화되여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주민들이 많이 쓸어들어온것으로 하여 서방나라들에서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인종차별만행들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는것은 《세계화》가 몰아온 부정적후과의 한 측면이다. 지난 시기 매개 자본주의나라범위에서 고유하게 지배하였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세계적범위에서 나타나게 되였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여 더는 극복할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있다.

민족산업의 몰락, 인민들의 빈궁화, 대외채무의 증대가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보편화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골간을 이루고 자본주의발전을 주도한다고 하던 서방나라들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몇해전부터 서방나라들을 휩쓴 금융위기는 1929-1933년 대경제공황이후 처음 보는 경제위기였다. 자본주의금융계를 쥐고흔들던 다국적금융업체들이 련이어 파산된것은 지난 시기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일이다. 금융회사들과 련계되여있던 대규모기업들이 비틀거리고 중소규모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바빠맞은 서방나라들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실업자,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대중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채무를 더이상 반환할수 없는 국가부도사태에 빠져들게 되고 유로사용지대의 붕괴문제까지 론의되였다. 서방나라들과 긴밀한 경제적련계를 맺고있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금융위기의 피해를 입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의 처지가 날로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 서방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2007년에 미국에서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것이였다. 그 금융위기가 한두해사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졌다.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미국에서는 국가채무가 법적한계선에 도달하여 그 해결을 둘러싼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정부페쇄사태가 빚어지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급해맞은 미국은 딸라를 망탕 찍어내고 국채를 대량 방매하는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딸라의 가치가 대폭 떨어져 많은 나라들이 딸라의존정책을 수정하고있다. 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가 깨여져나가고있다.

국가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할수없이 국가예산을 줄이는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한 군중이 떨쳐나 한줌도 안되는 대금융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반월가시위투쟁을 벌렸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로 하여 온 자본주의세계가 아비규환의 생지옥속에 빠져든것은 우연이 아니라 력사의 필연이다.

금융과두정치가 실시되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대내외정책이 몇몇 대금융자본가들의 리익에 맞게 세워지며 그들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한다. 이러한 독점의 지배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폭넓으면서도 파괴적인 성격을 띤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물질적부의 생산에서 육체로동이 아니라 지능로동이 기본으로 되고 정보산업이 경제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오늘에 와서 금융과두정치, 독점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금융자본가들은 방대한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그것을 저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시키는데 복종시키고있다. 그들은 더 많은 투자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채권을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상품들외에 새로운 금융파생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여 류통시키고있다. 상품거래액의 50배가 훨씬 넘는 방대한 금융상품들이 자본주의시장을 휩쓸면서 《거품》을 형성하고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그 거래량의 확대는 실물경제와 통화량사이의 배리를 촉진시키면서 자본주의경제의 불균형과 위기폭발의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미국 등 자본주의나라들이 겪는 금융위기도 바로 방대한 금융상품들이 만들어놓은 《거품》이 터진 결과이다.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중심의 사회이다. 극단한 개인주의, 부르죠아자유주의가 설교되는 자본주의사회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남을 디디고 올라선 자본가계급을 위해 복무한다. 생존경쟁에서 패한 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의 피해자로 남는다.

독점이 보다 강화되고 나라의 물질적부가 극소수의 특권층에로 집중되면서 빈곤한 사람들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사이의 격차가 하늘땅차이로 벌어지고있는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인 계급투쟁이 일어날수 있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들이 보여주다싶이 진짜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지금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수 있는 출로를 몸부림치며 찾고있다. 그러나 그 출로는 보이지 않고있다.

올해 1월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랭전에서 쏘련을 이기고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킨 미국이 이제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평하면서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제도에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경제발전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사회주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등 자본주의렬강들내부에서도 자본주의제도가 더이상 현 세계에 맞지 않으며 서방이 3~4년내에 시급히 자기의 경제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끝장날것이라고 하는 소리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한 외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하나의 변화는 서방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선배들처럼 사회주의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일종의 출로로 삼으려고 하는것이다.》라고 보도한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서방나라 청년들의 동경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본주의를 보면서 사회주의야말로 인류의 리상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인간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이다. 광범한 근로대중이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참다운 리상사회에서 사는 길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는 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지난 20년간에 걸치는 력사발전과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안고있는 진리의 힘이 남김없이 발양되여온 력사이다.

미국의 신식민지화정치, 지배주의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여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자기 나라 땅에 뿌리박고 자기 인민의 피땀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던 서방다국적기업체들의 주요자산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위한 국가적시책들을 내놓고 완강하게 실행해나가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극소수특권층이 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정당들과 인사들이 집권하는 사변들이 늘어나고있다.

인류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또는 소조,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여 자주사상, 참다운 사회주의사상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고있다. 인류의 리상향으로 꾸려진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의 한 정당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북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교제했던 가장 인정깊고 가장 믿음성있는 인간들에 속한다는것을 알았다. … 제국주의지배를 이겨내고 조선전쟁시기 인구의 4분의 1을 잃고 또 계속되는 전시조건에서도 자기의 사회제도를 줄곧 유지하고있는것을 보면 그들은 참 훌륭하게 살아왔다. 대학들에서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집없는 사람도 없으며 당당하고 위엄있는 인민들은 나라를 보다 유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의 악선전과 경제봉쇄속에서도 우리 나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교류, 협력에 나서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지난 3월 하순에 메히꼬에서 진행된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에 근 40개 나라의 100여개 정당, 단체대표단 및 대표들이 참가한것은 사회주의사상, 자주의 혁명학설이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넋으로, 투쟁의 기발이 되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가 과학이라는것은 우리 나라가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우러러보는 희망의 등대로,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는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 튼튼히 꾸려진것을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제재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는 한편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가하려고 음으로양으로 획책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위력, 사회주의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조미핵대결전에서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끝내 굴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끈질기게 감행된 미국등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켜냄으로써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조미핵대결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조선반도가 핵대전의 불길속에 휘말려드는가 아니면 평화를 수호하는가 하는 중대결단의 시기에 우리는 부득불 핵보유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미제의 핵선제공격기도와 대조선침략정책은 완전히 파산되고말았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승리인 동시에 사회주의의 빛나는 승리이다.

오늘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벌리고있는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면 세계의 더 많은 인민들이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것이며 그만큼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 로고와 심혈이 깃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현실로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면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지위를 굳건히 해나가고있다.

력사적총화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인류가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할 날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리 경 수

조선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요구

국제사회계는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는 북남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립장에 남조선당국이 호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국토분렬,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올해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합리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며 공화국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여야 조선의 자주적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 펼쳐질수 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의 분렬과 북남대결은 외세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력사적교훈은 북남대결로 얻을것이란 분렬의 지속과 전쟁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조선반도평화보장과 통일적발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썼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의 북과 남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조선의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애국애족의지를 외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해소하는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족끼리의 립장에서 과거의 불신을 털어버리고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확고한 의지만 가지면 능히 해결될수 있다.

조선의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어떻게 응해나서는가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이 협애한 대결관념을 버리고 동족과 과감히 손잡을 용단을 내린다면 북남관계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조선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과 조치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동족의 진정어린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좁처럼 열리지 못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계속 치닫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세계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조선민족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사업에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걸고 훼방을 놓지 말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북남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다,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한 조선의 평화애호적인 발기와 노력이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전략핵잠수함 《유리 돌고루끼》호가 10월 29일 바렌쯔해수역에서 깜챠뜨까에 있는 꾸라사격장을 향해 《불라바》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이 나라 국방성은 이번 발사가 실전에 가깝게 진행되였으며 성공적이였다고 밝혔다.

또한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이 10월 30일 이중용도위성 《메리지안》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쁠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위성은 운반로케트 《쏘유즈-2.1a》에 탑재되여있었다.

이 위성은 북해수역에서의 선박과 비행기들의 통신보장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원유와 가스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하루 원유생산능력을 430만bbl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가스생산능력은 1억㎥ 더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원유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따쥐끼스딴에서

따쥐끼스딴의 동부지역에서 최근 반테로훈련이 진행되였다.

2일동안 진행된 훈련에 국방성과 내무성, 반마약기관의 특수무력이 동원되였다.

훈련의 목적은 산악조건에서의 테로 및 파괴암해분자들과의 전투에서 여러 기관들사이의 협동능력을 높이는데 있었다고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꾸바와 아르헨띠나가 10월 26일 군사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최근 수단과 에짚트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토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탄자니아의 국립공원

로씨야 나토의 북극지대주둔을 배격, 미국의 불순한 기도 폭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10월 20일 강연에서 나토의 북극지대주둔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나토가 오래전부터 북극지대에 대한 주둔을 강화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지금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무슨 군사적요인에 대해 고집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나 이 지대에는 나토의 참가를 요구하거나 더우기 군사적해결을 필요로 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같은 날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는 대외정책문제들에 관한 공개강연에서 우크라이나사태를 통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그릇된 기도를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를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에서 자극제로 리용하며 유럽대서양지역에서 자기의 지도적지위를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맞서나갈것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0월 18일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맞서나갈것을 호소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포고문은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적들의 문화적공세와 침략행위에 철저히 대처해나가는것은 이란의 사상문화부문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 교육, 과학기술분야에서 진보를 이룩하고 혁명적인 이슬람교문화와 생활양식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포고문은 강조하였다.

제108차 국제항공련맹총회 진행

제108차 국제항공련맹총회가 최근 타이의 파타야시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항공체육을 사람들이 관심하는 종목으로 발전시키며 전문기술을 결합시켜 이 종목의 질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총회에서는 또한 련맹위원장과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되였으며 2015년 국제항공련맹 세계항공경기대회를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우주비행선 발사에서 실패

미국이 10월 28일 우주비행선발사에서 실패하였다.

이날 우주비행선 《씨그너스》를 탑재한 운반로케트가 발사된지 몇초만에 고장이 생겨 폭발하였다 한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규탄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10월 14일 신문 《그란마》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의 한 출판물에 꾸바에 대한 봉쇄조치를 걷어치울것을 당국에 요구하는 글이 실린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미국의 반꾸바봉쇄가 해제될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꾸바인민주권민족회의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3일 한 회의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봉쇄는 하나의 대량살륙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봉쇄책동은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10월 28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의 반꾸바봉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반되며 모든 국제관계체계에 파멸적인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는 미국의 반꾸바제재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압력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예방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 시에라레온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가 최근 에볼라비루스감염증전파방지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그는 현지관리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주민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동원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리베리아대통령 엘렌 존슨 써리프가 10월 19일 에볼라비루스감염증방지를 위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는 서아프리카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하였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급속한 전파를 막을데 대해 말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가 이 비루스로부터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가나대통령 죤 드라마니 마하마가 10월 29일 한 외교석상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예방사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 치료대들을 파견하고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에볼라비루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왁찐개발을 비롯하여 전염병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높일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 단죄

—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10월 26일 이스라엘당국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약 2 000세대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 프랑스외무성 대변인이 10월 29일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약 1 000세대의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국제법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이스라엘의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과정을 되살리려는 모든 노력들을 파탄시키고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 유엔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이 10월 29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많은 유태인살림집을 또 건설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앞으로 창설되게 될 팔레스티나국가에 위협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도발행위가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과학기술소식

약의 조성을 분석하는 나노장치 개발

최근 로씨야의 연구사들이 약의 조성을 분석하는 나노장치를 개발하였다.

발광2극소자가 설치되여있는 이 장치로 약에 빛을 통과시킬 때 변화되는 색갈에 따라 그 조성이 식별된다고 한다. 약의 조성을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미만인 이 장치는 제약회사들과 약국, 병원 등에서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려객선 건조

스웨리예에서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운행을 보장하는 소형려객선을 건조하였다.

고속충전기술을 리용한 이 려객선은 10분동안 충전하면 9㎞(노트)의 속도로 1시간동안 항행할수 있다.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새 려객선은 소음이 적고 진동이 없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한다.

물속의 비소를 제거할수 있는 담배재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배재를 리용하여 물속에서 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다.

연구사들은 산화알루미니움으로 피복을 씌운 담배재를 비소에 오염된 지하수에 잠근 다음 물의 비소함량을 측정해본 결과 물에서 비소가 96% 제거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된다 한다.

담배재를 리용한 비소제거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원가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171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